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4105.93 (+85.38)		929.14 (+13.8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999 (-0.011)		1479.75 (+3.45)

‘탈팡’ 틈새공략… 네이버, 가성비·콘텐츠 잡고 업계 1위 간다

〈쿠팡 이탈〉

와우 위협하는 네이버

네이버가 단순 검색 포털을 넘어 거대 커머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네이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흔들리는 쿠팡의 빈틈을 파고들며 이커머스 업계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네이버 커머스 매출은 9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급증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네이버의 전통적 캐시카우인 검색 플랫폼 매출(1조62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 3월 선보인 쇼핑 전용 앱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출시 8개월 만에 월간활성사용자수(MAU) 525만 명을 돌파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네이버커머스 3분기 매출 36%↑
플러스스토어 MAU 525만 돌파

쿠팡, 월 최대요금 1만7790원
네이버 4900원, 가격측면 유리

이 같은 성장 배경엔 쿠팡의 ‘와우 멤버십’을 위협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생략 밀착형 혜택이 자리 잡고 있다. 방대한 검색 데이터를 AI로 가공해 구매로 연결하는 한편, 타 플랫폼과의 공격적인 제휴를 통해 ‘가성비’와 ‘콘텐츠’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미디어 분야에선 다양한 플랫폼을 골라보는 ‘콘텐츠 뷔페’ 전략을 택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엑스박스 게임패스, 네이버 웹툰 쿠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중 하나를 매달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최대 40% 할인 혜택도 더했다.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월 7000원)나 스포티파이 베이직(월 8690원)을 개별 구독하는 것보다 월 4900원인 네이버 멤버십을 구독하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다.

반면 쿠팡은 ‘쿠팡플레이’를 통해 자체 제작 드라마와 예능을 선보이고 스포츠 팬덤을 묶어두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EPL(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NBA, F1

등 핵심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다만 스포츠 패스 추가 구독 시 월 요금이 1만7790원까지 치솟아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네이버에 밀린다는 지적이다.

쇼핑과 배달 혜택에서도 양사의 전략이 갈린다. 네이버는 ‘최대 5% 적립’이라는 강력한 현금성 혜택을 무기로 내세워, 최저가를 중시하는 알뜰 소비자를 공략한다. 배달 역시 ‘요기요’와 제휴해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요기패스X)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맞서 쿠팡은 ‘속도와 편의’에 올인했다. 금액 제한 없는 로켓배송과 30일 이내 무료 반품은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다. 또한 자사 앱인 ‘쿠팡이츠’의 무제한 무료 배달을 와우 멤버십 기본 혜택으로 탑재해, 쇼핑과 배달을 하나의 앱 생태계 안에서 해결하도록 고객을 묶어뒀다.

전선은 ‘퀵커머스’와 ‘새벽배송’까지 확대됐다. 네이버는 직접 물류센터를 짓는 대신 배송 동맹을 맺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롯데마트의 온라인몰 ‘제타’와 제휴해 멤버십 회원에게 ‘제타패스(무료배송 및 3시간 내 배송)’를 개방했고, 앞서 9월에는 컬리와 손잡고 ‘컬리N마트’를 선보여 새벽배송 시장에 진입했다. CJ대한통운과는 ‘도착보장’ 서비스를 고도화해 일요배송과 희망일 배송까지 구현했다.

쿠팡 역시 최근 쿠팡이츠에 홈플러스의 장보기·쇼핑을 입점시키며 퀵커머스 확장에 나섰다.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는 쿠팡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제휴를 통해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지만 이는 느슨한 연대에 불과하다”며 “자체 물류센터부터 라스트마일(최종 배송)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쿠팡이 변수 대응이나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초반빙 양상이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오픈마켓 결제 점유율은 쿠팡 37.7%, 네이버 34.0%로 격차는 불과 3.7%포인트에 불과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1480원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3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한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시세가 보이고 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4020.55)보다 85.38포인트(2.12%) 오른 4105.93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15.27)보다 13.87포인트(1.52%) 오른 929.14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

금감원 ‘소비자 보호 총괄’ 신설
사후조정 아닌 ‘사전예방적’ 추진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TF 설립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부원장보를 새로 두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내부 조직 개편에서 소비자 보호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 민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



이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를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했다. 감독 총괄 기능도 부여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

스(TF)도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

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이 ‘사후적인’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업무도 업권별로 나눠서 배치했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 등이 각각 특성에 맞게 업무를 관장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 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반토막’

전국 아파트 17.2만 세대 입주
올해보다 28% 감소하는 수치
서울은 48% 적은 1.6만세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건축비 상승과 대출 규제에 따른 ‘공급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23만8372세대)보다 28% 감소하는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총 8만153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11만

2184세대)보다 28% 가량 줄었다.

특히 서울은 2025년보다 48% 적은 1만6412세대가 입주한다. 이 중 대부분인 1만4257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평택, 이천, 파주, 의왕 등 위주로 5만361세대,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택지지구 위주로 1만4761세대가 입주한다.

자방 역시 2025년 12만6188세대에서 2026년 9만736세대로 약 28% 줄어든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 13만여 세대에 크게 못미친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5155세대 ▲은평구 2451세대 ▲송파구 2088세대 ▲강

서구 1066세대 ▲동대문구 837세대 등의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총 32개 단지가 입주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대규모 사업장들의 입주가 계획돼 있다. 서초구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세대)와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티원(2091세대)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은평구에서는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메디알레(245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는 ▲평택(8012세대) ▲이천(6074세대) ▲파주(3822세대) ▲의왕(3813세대) ▲화성(3259세대) 등 기존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이어진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택지지구 위주로 총 19개 단지, 1만4761세대가 입주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네이버플러스-쿠팡와우 비교			
N+ 멤버십			coupang
4,900원		가격	7,890원(스포츠패스구독시 1만7790원)
포인트 적립, 가족계정 공유 가능		장점	로켓배송, 배달비 무료·자유로운 반품
롯데시네마, 웹툰 쿠키 제공,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XBOX 게임패스		미디어	EPL, NBA, F1, 자체 제작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요기요 무료 배달		배달	쿠팡이츠 무료 배달
34%		오픈마켓 결제 점유율	37.7%

*결제 점유율은 올해 3월 기준(자료/와이즈앱리테일)

자료/각사

메트로 한줄뉴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기본 복지는 촘촘하게’ /사진 뉴시스
▲국힘 “與, 내란재판부법 단독 상정…‘슈퍼악법 날치기’”

▲국힘 과방위원들 “왜 최민희가 쿠팡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하나”
▲김민석 총리 “자살 예방 국정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

▲이 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관련 지시 없어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필수 전제 아니야”

삼성바이오, 美에 첫 생산거점 확보... 글로벌 공급망 구축

GSK와 HGS 생산시설 인수 계약
4000억 규모, 내년 1분기 절차 완료

최근 생산능력 78.5만 리터 확대
2032년 132.4만 리터 확대 계획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첫 생산거점을 확보하며 순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단순 생산 능력 확대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CDMO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를 통해 글로벌 빅파마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미국 메릴랜드 락빌에 위치한 휴먼 지놈 사이언스(HGS)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수 금액은 2억8000만 달러(약 4147



미국 메릴랜드 락빌 소재 '휴먼 지놈 사이언스' 바이오의약품 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억원)이며 인수 절차는 오는 2026년 1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생산시설은 총 6만 리터(L) 규모의 원료의약품(DS) 공장으로서 두 개의 제조동으로 구성됐다.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다양한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운영 안정성을 위해 해당 공장 경험을 보유한 현지 인력 500여 명도 전원 고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 생산에 대

한 계약까지 승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위탁생산(CMO)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송도에서도 초격차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1바이오캠퍼스 내 2공장에 1000리터(L) 바이오리액터 1대를 추가 도입했다. 총 생산 능력을 78만4000리터(L)에서 78만5000리터(L)로 늘린 것이다. 현재 제1바이오캠퍼스 1~4공장

은 풀 가동하고 있고 제2바이오캠퍼스 5공장은 랩트 업 단계에 있다.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에 6~8공장을 완성해 총 생산 능력을 132만4000리터(L)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인천 송도 내 제3바이오캠퍼스 부지까지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송도 바이오캠퍼스와 미국 락빌 공장을 연결하는 이원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고객사에 유연하고 안정적인 생산 옵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미국 락빌에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어 북미 등 해외 고객과 협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역별 공급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하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이 예고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한국바이오협회 등은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제

한할 경우, 미국과 중국 기업에서는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며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유럽기업들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존 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인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이라며 "연방·주·지방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 지원과 바이오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지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락빌 시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지스 시마르 GSK 글로벌 공급망 총괄 사장은 "이번 거래를 통해 장기 파트너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락빌 생산 시설을 인수함으로써, 미국 환자들을 위한 주요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GSK 역시 글로벌 공급망 운영의 안정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올해 車 수출 역대최대 전망

산업부, 11월 누적수출 660억 달러
대미 수출액 5.1% 증가 '상승 전환'

올해 1~11월 한국 자동차 수출이 66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자동차수출액은 710억달러를 웃돌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자동차수출액은 64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역대 11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올해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한 인천항·평택항 선적 차질에 따른 지연효과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수출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26억9000만

달러로 5.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수입차 관세로 부진했던 대미 수출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억2000만달러로 3.4% 증가했고, 기타 유럽(51.8%), 아시아(32.1%), 중동(8.0%), 중남미(29.0%) 등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친환경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11월 친환경차 수출은 7만8000여 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이상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수출은 5만4000대, 수출액 기준 15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0만대를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도입하기로

>> 1면 '이찬진 금감원장...'서 계속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한다.

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을 각 업권에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특정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업무 시너지는 물론 감독과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서다.

분쟁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는 한편, 보험 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 배치했다.

또 민생 금융 범죄를 대상으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민생특별사법경찰추진반(TF)'을 설립해, 특사경 관련 법령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관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신 금융 범죄 수법과 동향 등 정보를 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크고 작은 인생의 순간들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나와살아가는보험을만나다

한화손해보험 전속모델 고윤정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난임 진단비 보장

난임진단비(기혼자용)(갱신형) 특별약관
(보장 종료일은 보험나이 48세까지, 보험 가입
1년간 보장 제외, 최초 1회한)

몸 건강을 넘어 마음 건강까지 케어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
정신질환) A*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 후 1년
이내 50% 지급, 최초 1회한, 세부보장별 지급조건 상이)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A:과다수면장애 [과다수면], 수면무호흡, 발작수면 및
히탈발작, 비기질성 과다수면, 비전형적 신경성 식욕부진, 비전형 신경성 폭식증, 우울 에피소드,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5928호(2025.12.08~2026.12.07)



채팅 상담하기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한화손해보험

K-반도체, HBM4 주도권 경쟁 치열... SK '선두' 삼성 '추격'

SK하이닉스 업계최초 양산 성공
엔비디아 '유상 샘플공급' 단계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고득점
이재용 회장, 기흥 등 현장경영 나서

SK하이닉스가 내년 출시되는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될 HBM4를 엔비디아에 선제 공급하며 차세대 HBM 시장 주도권을 굳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빠른 속도로 추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흥캠퍼스를 방문해 HBM 등 첨단 반도체 제품 사업화에 기여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 시장 장악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엔비디아 관계자가 삼성전자에 방문해 HBM4 시스템 인 패키지(SiP) 테스트 결과를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샘플이 구동 속도와 효율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SiP는 여러개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

칩을 하나의 시스템 반도체로 직접하는 패키징 방식이다.

이번 평가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4 공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품질 테스트의 벽을 넘지 못했던 HBM3E(5세대)와는 달리 차세대 제품의 기술 완성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이번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 출시할 루빈에 탑재될 HBM4에 대한 정식 공급계약을 내년 1분기쯤에는 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오는 2분기부터 본격

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수익성 확대가 기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와 맞물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NRD-K를 방문해 차세대 R&D 시설 현황 및 ▲메모리 ▲파운드

리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기술 경쟁력을 살펴본 점도 주목된다. HBM4는 초기 양산 단계에서 인력과 R&D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오히려 차원의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는 점이 관련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읽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 HBM4 개발을 완료해 업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엔비디아에 HBM4 최종 제품을 유상 공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테스트용 무상 샘플이 아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단계로, 제품 성능이 고객 요구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상 '유상 샘플 공급'은 정식 계약 직전 단계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향 공급 물량이 2만~3만장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의 피드백을 반영해 일부 수정된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는 관측이 따랐다. 이로 인해 초기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성능 지표가 고객사 요구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HBM 등 첨단 메모리 제품의 경우 양산 체제를 구축한 이후에도 고객사와의 패키징·시스템 최적화 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성능 문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4가 본격 양산되는 내년 상반기를 전후해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한 기업이 중장기 수익성과 시장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패키지 전체 수율을 개선할지, 개별 칩 성능과 수율 개선에 집중할지를 놓고 기업별 전략 차이가 경쟁 구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AI, 美 UJTS 수주 기대감

〈해군 차세대 고등 훈련기 사업〉

美 해군, 요구 조건 구체화
경쟁진영 대비 '유리' 분석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국 해군 차세대 고등 훈련기 사업(UJTS)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 해군이 내년 2월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후보업체들에 발송할 예정인데 주요 사업내용이 KAI와 컨소시엄을 이룬 록히드 마틴 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은 지난 15일 UJTS 정보제안요청서(RFI)를 업데이트하며 요구조건을 구체화했다. 도입 규모를 약 216대로 처음 공식화했고, IOC를 전제로 소량초기생산(LRIP) 인도 60일 전부터 12개월간 항공기당 월평균 35시간 운용을 요구했다. 전투기 작륙 프로그램(FCLP)은 접근 단계까지만 수행하고, 항모 체포착륙·고강도 착함 훈련은 시뮬레이터 중심으로 유지했다. 사업 범위는 훈련기+훈련체계 패키지로 규정됐다.

UJTS는 노후화된 미 해군 T-45 고사크 훈련기 교체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40억 달러(약 6조원)로 추산된다. 현재 ▲보잉·사브(T-7A 레드호크) ▲록히드 마틴·KAI(TF-50N) ▲텍스트론·레오나르도(M-346N) ▲시에라 네바다(SNC)(Freedom Trainer) 등 4개 그룹이 경쟁 중이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의 제안요청이 바로 운용 가능한 기체와 훈련체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납기·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후보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KAI-록히드마틴 팀은 T-50 계열을 공동 개발해 양산·수출·운용 경험을 쌓았

고, 이를 바탕으로 미 해군 요구를 겨냥한 TF-50N으로 UJTS에 도전한다. 록히드마틴은 TF-50N이 전투기급 조종·시스템 구성을 갖추고 예측·상태기반 정비 체계를 적용해 조기 전력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진영도 '즉시 투입' 프레임은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텍스트론·레오나르도는 M-346 기반 'M-346N'을 '즉시 투입'으로 제안하며 시뮬레이터·임무계획도구·LVC(실기·가상·구성 통합 훈련)를 포함한 패키지 구성을 강조했다. M-346 계열은 전 세계 누적 100대 이상 운용 실적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잉·사브 T-7A는 디지털 기반 훈련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미 공군 사업에서 개발·납기 지연 이력이 부담으로 거론된다. SNC는 신규 설계 '프리덤 트레이너'를 제안하며 디지털 개방형 아키텍처·지상훈련체계와 함께 T-45 대비 수명주기 비용 약 40% 절감을 내세웠다.

이번 사업은 2027회계연도 2분기중에 계약체결이 예상된다. KAI로서는 이번 사업을 수주할 경우 미군 운용 이력이라는 실적을 확보해 미국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도입 가능성과 KAI 플랫폼의 해외 마케팅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UJTS는 KAI에게 의미 있는 기회"라며 "록히드마틴과의 협력을 통한 상호운용성과 후속 군수지원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에는 정부적 판단도 작용하는 만큼 록히드마틴과 한 팀을 이룬 KAI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퇴직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연금

개별 IS

Free~!

IRP 수수료 FREE

연금 전문가상담 FREE

실시간! 적립식 ETF 거래도 자유롭게

KB증권

연금으로 미리 PICK 하셔야 가능합니다.

퇴직 후 고민을 뚫! 자유를 뚫! 개별증권

*KB증권 중보감사인 심사필 제2025-2118호 (2025.08.19~2026.08.18)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제1금융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 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 설명서·권한투자규약 필독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통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체) 발생 가능 및 투자지 귀속 *과세 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외 수령 시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는 연 0.20%~0.25% (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ETF 거래 시 HTS 1천원 원 이상~5천원 원 미만 0.1278%+2,000원, 모바일 0.1978% 기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펀드 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KB증권

구광모 “변곡점에 선 지금, 기존 성공 방식부터 바꿔야”

〈LG그룹 회장〉

**LG, 국내외 구성원 대상 신년사
기술·경쟁·고객·조직 환경변화 진단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 기존방식 지적
“지금은 선택과 집중 혁신 필요”**

“변곡점에 선 지금, 10년후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는 혁신으로 이끌어야”

지난 2019년 신년사에서 고객이 LG가 나아가갈 핵심 방향임을 강조했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객가치 경영 메시지를 다시 전하며 진화·발전 시킬 것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22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구광모 (주)LG 대표.

말했다.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이 바뀌는 상황에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할 것을 주문한 것

이다.

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구 회장은 국내외 LG 구성원들에게 ‘000님, 안녕하세요. 구광모입니다. (Hello, this is Kwang Mo Koo)’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혁신은 오늘의 고객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미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변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고객의 마음에 닿을 하나의 핵심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며 “하나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혁신

의 방향성을 세우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한 그곳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며 “그 치열한 집중이 고객이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경험을 만들고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완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 서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기회”라며 “10년 후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를 선택하고 여기에 우리의 오늘을 온전히 집중하는 혁신이야말로 LG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신년사에서 ‘고객’을 LG가 나아가갈 핵심 방향임을 강조한 후 지속적으로 고객가치를 강조했다. 2020년에는 고객 페인

포인트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고, 2021년에는 고객 초세분화를 통해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022년에는 한 번 경험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치 있는 고객경험을, 2023년은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를 화두로 제시하며, 모든 구성원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고객 감동을 키워가자고 했다.

2024년은 LG가 시장을 주도하는 최고의 고객경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적 고객가치에 대한 몰입’을 강조했다. 2025년에는 LG의 창업 초기 첫날부터 이어 온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리자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지형 “중단된 사회적 대화, 국민 참여 공론화 방식으로 재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사회적 대화 운영 구상 등 밝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형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대화를 재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재개라는 표현보다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노동계와 경영

계 주요 단체, 원로, 학계,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경사노위의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공론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갈등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중대하다고 여기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풀기 위해 각 주체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질 것인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통상질서 재편 등 복합 전환 위기를 언급하며 “이해당사자뿐 아

니라 국민 모두의 지혜가 반영되는 참여 민주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경사노위 운영의 핵심으로 통섭형 의제 발굴과 공론화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기존 노동관계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적 과제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년연장, 청년취업 같은 문제도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의 계속고용과 소득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를 열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과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공론화 기법을 활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청년, 고령층 등 미조직 이해당사자 참여 폭도 넓히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 조건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참여 시점이 불투명한 것도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를 멈춰 둘 수는 없다. 현재 참여 가능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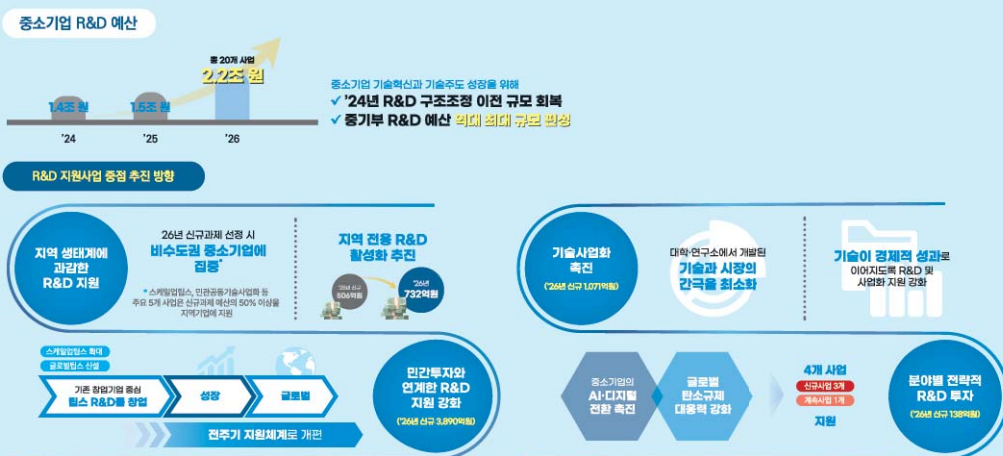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노총 참여의 모멘텀도 커질 것”이라며 “배제한 채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경사노위가 ‘합의 도출’에 과도하게 매몰돼 왔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운영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렬되거나 정책·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결론을 조급하게 정해두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우선되는 구조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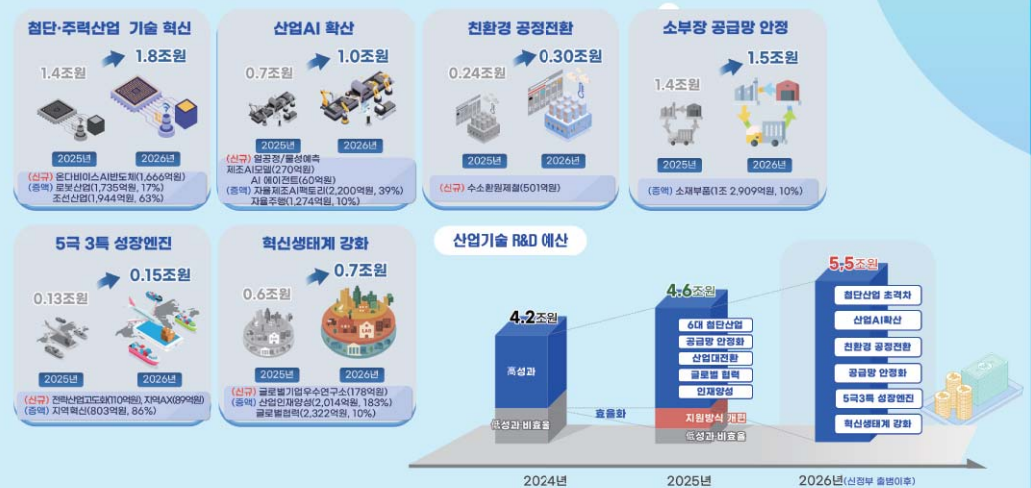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26년 중기부-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기부 '26년 R&D예산 현황 · 주요투자 분야



산업부 '26년 R&D예산 현황 · 주요투자 분야



공고 세부 내용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https://www.motir.go.kr/>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 밝아집니다.

신한은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AI·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물론,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 제조업과 뿌리산업 전반에
기술금융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으로
K-성장, K-금융을 선도하겠습니다.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신한은 올해 하반기 기술금융 지원을 1조 8,789억 원 늘려 누적 42조 8,186억 원(10월말 기준)을 달성하며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 수용… “與野 관계없이 수사하자”

정청래 “2차 종합특검법 추진
통일교 특검 못 받을 것도 없어”

김병기 “민주당, 회피한 것 아냐
특검 안 받을 거라 착각한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통일교가 얼마나 연루됐는지, 여야 관계없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뿐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비리·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내란특검은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을 누가 불러줬고, 누가 최초 기록했는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합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역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 통일교 특검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발언을 이어받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정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됐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가 무겁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 청탁을 넘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이)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으니 (특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모양이다.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정교유착으로 불법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되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대신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며 “오늘 오전이라도 만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도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으니, 송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명분도 사라졌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끝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 고발·국정조사 등으로 압박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 예정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등 참석
“김범석 참석 강행할 수단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쿠팡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부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위, 기후에너지환경노위, 기재위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며 “과방위원장이 주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 의원은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6명, 타 위원회에서 2명씩 구성한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기타 당에도 제안해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안상 일정은 12월30~31일”이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은 최소 7일 가량 소요되는 증인 채택 절차 등을 고려했다. 또 김범석 의장 등이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은 생활물류법 적용을 받는 국토위 주관”이라며 “시행 규칙에 따르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미충족 시에는 보완 요구 가능하고 안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쿠팡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는 물론 한국 본사에 100명 넘는 인력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폴립먼트서비스에 조사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 물류 회사인 쿠팡폴립먼트서비스다. 하지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해 ‘채계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사4국과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사 대상은 쿠팡 본사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본사, 계열사 간의 자금 흐름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금융파터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Tuesday

Wednesday

Thursday

2

3

4

9

11

16

18

23

24

25

KB손해보험이 지키는

1년 365일 든든한 일상!

일상을 지키는 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우회상장 금지·발행공시 의무화 등 가닥… ‘가상자산법’ 속도

금융위, 법안 초안 국회 전달
스테이블코인 해외서 발행시
본국 인가, 국내 지점 갖춰야
은행 과반 컨소시엄 등 쟁점 여전

정치권이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근거 마련을 포함한 ‘가상자산 선진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법 마련의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여당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검토에 돌입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놓고 관계기관의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남았다.

◆ 가상자산법 ‘정부안’ 윤곽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보고했다. 초안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주요 내용에 더해 ▲가상자산의 발행정보 공시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한국 법인 설치 의무화 ▲거래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판매 시 충분한 정보공시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월 발대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발행한 뒤 국내에 우회상장하는 관행을 막고, 시장 내에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금융위는 특히 발행공시 주체를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로 명시해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해외발행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형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테더(USDT)나 서클(USDC)을 비롯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본국 인가와 국내 지점을 모두 갖춰야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발행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에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도 부여하도록 한다.

테더와 서클을 비롯한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서도 대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고와 비슷한 책임을 부과하는 ‘과다실 손해배상책임’ 부과와 함께,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상장 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 與,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박차’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전달되지 않았

지만, 민주당은 이날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지난 9월 발대식 이후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 원화 스테이블 발행 허용 및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해 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입법절차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정부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은 정부안 마련이 더 지체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정문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당 초에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려 했으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회의도 연

내년 가계대출 조인다… 5대은행, 증가율 2% 목표

정부 고강도 규제 맞춰 철저 관리
주담대·전세대출 실수요자 우려

주요 은행이 내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다시 한번 조일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맞춰 대출 총량을 줄여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조 47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은행은 올해 초 대출 총량 증가액을 8조 690억원으로 잡았다. 당초 예상과는 7.4% 낮지만, 당국이 6·27 대책

발표 이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당초 설정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달라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는 이달 들어 2617억원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이 컸다.

은행들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내년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도 올해와 비슷하게 잡을 전망이다. A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정책대출 제외)를 올해 말 잔액보다 1.7%, B은행은 2% 많은 수준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은행 등 올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잡은 목표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당장 내년 1월부터 영업에 반영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최대한 일찍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당분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문제는 잠재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올해 명목 GDP 증가율은 4%다. 관행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의 총량 관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무보증·AAA) 은행채 금리는 평균 연 3.51%다.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8월 14일 연 2.799% 이후 0.711%포인트(p) 뛰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석 달 연속 뛰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 2.57%에서 11월 2.81%로 올랐다.

이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수준이 높은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증가율로 관리해 연착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왼쪽부터)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담당 도정훈 상무, 프랑스 빌모트사 회장 장미셸 빌모트,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 김철훈 위원장이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프랑스 빌모트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외관 특화디자인 본격협업

대우건설은 프랑스 빌모트(WILMOTTTE)사,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외관 특화 디자인을 위해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수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빌모트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 리노베이션, 엘리제궁 등 프랑스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온 세계적인 설계사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독창적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하이엔드 주거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대우건설과 빌모트의 주요 관계자는 MOU 체결 후 공작아파트로 이동해 사업지를 직접 살펴봤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7% 이하 제한

금융취약계층 금리부담 덜기로
내달 2일부터 재약정 맞춰 적용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9월 출범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따라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은 또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포용금융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번 ‘대출금리 상한제’ 시행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 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우리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12%다. 상한제 도입에 따라 현재 연 7~12% 금리에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대 5%포인트(p)의 금리가

감면되며, 향후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도 보다 저렴한 금리에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또한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공급한다.

우리은행은 또한 ‘새도약기금’ 출시에 발맞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추심을 중단하고, 미수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 이상인 대출이다.

우리금융은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체자 지원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中 전기차, 글로벌 시장 공습… 獨 등 전통 완성차 강국 ‘흔들’

신흥국 등 시장 점유율 빠르게 확대
폭스바겐, 88년만에 獨 공장 폐쇄
“中 경쟁 위해 정부 정책지원 필요”

중국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유럽과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계는 유럽을 비롯해 신흥국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현지 업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2위이며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폭스바겐은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전동화 전략 차질로 영업이익도 급감했다. 폭스바겐은 올해 3분기 10억 7000만 유로(약 1조9000억원)의 세후 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3.6%에서 올해 3분기 -1.6%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마진율이 낮은 전기차 생산 확대와 계열사 포르쉐의 전기차 전략 수정에 따른 비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



순수전기차 ‘돌핀 미니’

/BYD

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에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 벤츠의 글로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1456억 유로(220조 원)에 그쳤고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31% 급감한 136억 유로(20조 5300억원), 순이익도 104억 유로(15조 7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벤츠 최대 단일 시장인 중국 시장의 점유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중국 지역 판매량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71만 4000대를 기록했다. 매출도 8.5% 감소한 231억 3900만 유로(34조 9400억원)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벤츠도 올해 대규모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자동차 판매, 금융 등 핵심 사업 직원의 약 15%를 감원하는 등 인력 감축을 진행중이다. 벤츠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세계에서 최대 3만3000명을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 완성차 업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전기차 사업 축소를 선언했다. ‘전기화 혁명’을 강조해온 포드는 최근 간판 차종인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고,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에 집중하는 쪽으

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에 밀려 수요 감소와 전기차 시장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 전기차의 ‘공습’이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한국 시장은 전기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중국 업체에 매력적인 국가다. BYD가 가성비 모델 ‘아토3’ 등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커와 샤오펑 등도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자동차 강국인 독일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 등의 자동차 산업을 잠식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럽과 신흥시장을 공략했지만 최근 관세 장벽에 막히면서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중국 기업과의 경쟁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美 CES 기술포럼 개최

AI·가전 등 4개 세션 구성

삼성전자가 새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업계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삼성 기술 포럼’을 갖고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술을 조명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월 5일부터 6일(현지시간) 양일간 윈 호텔에서 마련된 삼성 전자 단독 전시관에서 삼성 기술 포럼이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 기술 포럼은 AI, 가전, 디자인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삼성전자 내부 전문가와 파트너사, 학계, 미디어, 애널리스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엘라쇼’ 개최

LG전자가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전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6 엘라쇼(엘지전자 라이프 쇼핑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베스트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입 회원 모두에게 17개 제품 대상 최대 117만원 상당의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팩을 제공한다.

다품목 구매구독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베스트샵(백화점 포함)에서 LG 가전 2개 품목 이상 구매·구독 시 캐시백, 멤버십 포인트 등 최대 7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전자 공식 온라인브랜드숍에서는 가입 회원 대상 총 50만원 상당 혜택의 엘라쇼 쿠폰팩을 준비했다. 내달 15일까지 총 50만원 상당 혜택의 랜덤 쿠폰팩을 공식 온라인브랜드숍 엘라쇼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차현정 기자

디스플레이·완성차, 협업 활발… OLED 등 ‘프리미엄 시너지’

삼성D 페라리 신모델 패널 채택
제네시스 GV80에 OLED 공급

LGD OLED 신제품 국제표준 획득
벤츠 GLC전기차 LCD 개발 완료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완성차 기업과의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화와 사용자경험(UX), 프리미엄 브랜드가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차량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 수요도 고급차 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용 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지난 2024년 250만대에서 올 3분기 누적 출하량을 270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제조업체별로는 삼성디스

플레이가 171만대로 64%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BOE는 21%의 점유율로 뒤를 이었으며 LG디스플레이는 8% 기록해 프리미엄 차량용 OLED 부문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업도 활발히 확대하고 있다.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는 차세대 모델에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 패널이 향후 모델에 최종 채택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 패널은 초슬림 베젤과 완전한 블랙 표현에 가까운 명암비, 깊이감 있는 화질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자인 자유도와 몰입형 주행 환경 구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2027년 이후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80 완전변경 모델에 처음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2021년에는 현대

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의 사이드미러에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양사 간 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차량용 OLED 신제품에 대해 UL 솔루션으로부터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국제 표준’을 획득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개화를 앞두고 차량 보안 관련 인증이 유럽을 중심으로 의무화되는 흐름을 보여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향후 LG디스플레이는 사이버 보안 인증을 충족하는 차량용 OLED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체계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자동차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제품 수주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제품도 병행하며 수익성 확대에 주력하는 모

습이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2026년형 메르세데스-벤츠 GLC전기차에 공급할 대형 옥사이드 박막트랜지스터(TFT) LCD 개발까지 완료했으며 차량용 LCD 생산을 기존 6세대에서 8.5세대 라인을 확대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와 협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플라스틱 OLED(P-OLED) 곡면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등 곡면 패널 제조 분야에서 기술을 입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대형·고사양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공급 확대에 나서는 흐름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천무’ 수출… 4400억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유도 무기 ‘천무’가 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 지원과 K9 자주포 수출을 통해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까지 수출선을 넓히며, 천무의 유럽 내 입지와 수출 저변을 한층 넓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에스토니아와 약 4400억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천무 발사대 6대와 사거리 80km·160km·290km급 유도미사일 3종이 에스토니아에 공급된다.

유럽 내 방산 협력 체계가 불룩해지는 흐름에 대응해 에스토니아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부 부품 현지 생산과 MRO(유지·보수·정비) 체계 구축 등 현지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 무기 공급을 넘어 중장기적인 운용·정비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교두보로 노르웨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국가를 비롯한 북유럽 전반에 천무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K9 자주포에 이어 ‘제2의 K-방산’ 글로벌 베스트셀러’ 육성을 통해 수출 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재일 대표는 “K9 자주포에 이어 한화의 방산 솔루션을 다시 한번 신뢰해준 에스토니아 정부와 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K-방산의 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천무 공급 계약식에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왼쪽)와 카트리 라우센 에스토니아 방산투자청(ECDI) 청장 대행이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제트핏’ 신제품 판매

삼성전자가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과 최대 180W의 흡입력으로 사용성을 크게 높인 무선 스틱 청소기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무선 스틱 청소기 ‘제트핏(Jet Fit)’ 신제품을 23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트핏’ 스틱 청소기의 손잡이와 브러시, 모터, 먼지통, 배터리 등 전체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무게를 1.96kg까지 줄였다. 브러시와 파이프를 분리한 핸디 형태로 사용시에는 무게가 1.18kg에 불과해 청소기를 가볍게 들어올려 선반 위나 창틀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공간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 디지털 인버터 모터의 흡입력은 최대 180W에 달하며 새로워진 경량형 배터리는 일반모드에서 최대 50분까지 작동한다.

/차현정 기자

효성중공업, 유럽 초고압 전력기기 2300억 수주 ‘질주’

영국·스웨덴·스페인서 대형 계약
영국 시장 점유율 1위로 입지 강화
북유럽·남유럽 잇는 공급망 구축
기술력 앞세워 하이엔드 시장 안착

효성중공업이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에서 약 23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인 SPEN(Scottish Power Energy Networks)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기 수요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초고압변압기는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인 ‘넷 제로(Net Zero) 플랜’ 이행을 위한 핵심 품력발전 프로젝트에 투입될



효성중공업이 2025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설치한 초고압변압기.

/효성중공업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영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15년간 제품 공급은 물론 고객 맞춤형 설계와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공급업체로 입지를 다져

왔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영국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북유럽과 남유럽으로도 수주 성과는 이어지고 있다. 이달 스웨덴의 주요 배

전사업자로부터 약 5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사업자와는 지난해부터 파트너십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에서도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북유럽 전반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쌓고 있다. 또 스페인의 주요 전력회사 및 에너지 기업과 약 600억원 규모의 변압기·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남유럽 시장에서도 첫 성과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효성중공업은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유럽 전력기기 시장은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선점한 대표적인 하이엔드 시장으로, 독보적인 기술력 없이는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프랑스 송전망 운영사(RTE)의 초고압변압기 단락시험에 성공하며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켰다. 단락시험은 극한의 전기적 부하가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변압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는 고난도 시험이다.

업계에서는 조현준 회장이 강조해 온 기술 중심 경영이 보수적인 유럽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회장은 평소 “기술이 뒤쳐진 제품이나 불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전력기기는 수명이 긴 만큼 고객에게 변치 않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초격차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유럽 전력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 이상 성장해 약 60~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성숙 “청년 로컬창업가 1만명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로컬창업가 1만명 발굴 의지 밝혀
전문가 제언, 청년창업 사례 공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내년부터 청년이 이끄는 ‘로컬창업가 1만명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많은 청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지방에서 창업에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아낌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로컬창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 청년 로컬창업가 8명을 비롯해 김시열 전주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김 교수는 ‘로컬창업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청년 로컬창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청년 로컬창업가를 키우는 핵심 플랫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선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등의 청년 로컬창업가들이 지역 자원과 자신만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온 경험을 공유했다.

강원도 들깨 로스터리를 운영하고 있는 ‘깨 로스터리 옥희방앗간’의 문지연 대표, 서울 포방터 시장의 쭈꾸미볶음 식당에서 만능장 제조기업으로 성장한 ‘포방터 쭈꾸미’의 조윤식 대표,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만든 비건·저당만두를 미국과 호주 등으로 수출하는 ‘육거리 소

문난만두’ 이지는 대표 등이 온라인 유통, 해외시장 진출, 지역 앵커스토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과정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로컬 창업 시 위기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로컬 브랜딩, 제품 혁신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로컬 창업가 연 1만명 발굴과 로컬 기업이 연 1000개사 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한다. 중기부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혁신 창업사업화자금으로 1조6000억원을,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2500억원은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배정했다.

특히 정책자금은 비수도권과 혁신성장 분야, K-뷰티 기업 등에 집중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귀뚜라미, 고효율 앞세워 난방비 낮춘다

콘덴싱 교체 시 효율 12% 향상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
카본매트로 부분 난방 효과

귀뚜라미가 겨울철에 더욱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와 3세대 카본매트로 시장을 더욱 공략하고 있다.

22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난방비 절감의 첫 단계는 보일러 교체다. 환경부 조사(2023년 기준) 결과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꿀 경우 에너지 효율이 약 12% 향상되며, 연간 최대 44만원의 가스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100만 원에 이르는 설치 비용은 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귀뚜라미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렌탈케어와 함께 ‘따숨케어’ 보일러 렌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비용 없이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며 최대 8년간 무상 A/S와 연 1회 정기점검, 24시간 내 고장 대응 등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다. 특히 ‘거꾸로 ECO 콘덴싱 L 20’ 모델은 제휴카드 사용 시 월 4900원 대로 이용할 수 있어 합리적인 난방 준비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내 전체 난방과 함께 부분 난방을 병행하는 것도 난방비 관리에 효과적이



귀뚜라미 모델 지진희 배우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3세대 카본매트와 포스를 취하고 있다.

/귀뚜라미

다. 보일러 가동을 줄이고 난방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난방매트는 1세대 전기매트와 2세대 온수매트를 거쳐 최근에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3세대 카본매트로 진화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온수매트 대비 약 절반 수준인 160W 저전력 설계를 적용했다. 한국산업기술원 시험 결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 사용해도 전기요금은 7000원대에 그치며 에코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20%의 추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도 강화했다. 방탄복 소재로 활용하는 아라미드 섬유를 적용한 ‘아라미드 카본열선’을 사용하고 2중 피복 구조로 열선 손상 가능성을 낮췄다.

/김승호 기자

SK인텔릭스, 산학 협력으로 AI 웰니스 강화

MIT·KAIST·연세대와 기술공동 연구

SK인텔릭스가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산하 융합기술 연구소 MIT 미디어랩(MIT Media Lab), 카이스트(KAIST), 연세대 연구팀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웰니스 기술 연구에 나선다.

SK인텔릭스는 지난해 MIT 미디어랩에 가입하며 다양한 공동연구 기회를 확보하고 사용자 중심 혁신적인 웰니스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AI, 건강, 웰빙의 교차점에 있는 유망 분야를 미디어랩과 함께 발굴하고 조기 감지 및 맞춤형 모니터링 기술 등 미래 웰니스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 박인규 교수 연구팀과 추진한 ‘딥러닝 기반 실내 유해가스 5종 판별 기술 개발’이 최근 성과를 냈다.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실내 유해가스 5종을 정밀하게 감지·구분하는 데 성공했으며, 방향제 등 비유해성 가

스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로 판별해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의 정밀도를 한층 끌어올린 결과를 확보했다.

연세대 김태연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도 마무리 단계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했다. 자율주행 기반 이동형 에어솔루션과 고정형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 및 청정 시간 등을 비교·분석한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의 정량적 성능 지표를 확보하며, 이동형 에어솔루션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SK인텔릭스는 해당 분석 결과를 향후 제품 설계와 공기청정 기술 고도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 경기, 내년 BSI 100 상회 전망

벤처協 발표 4분기 BSI 지수 95.3
내수판매·자금사정 좋아질 것 기대

벤처기업 경기가 내년 1분기에는 기준점인 100을 상향 돌파하는 등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 조짐이다.

올해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4분기 현재 100에 바짝 다가섰다.

벤처기업협회가 22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4분기 실적 BSI는 3분기의 89.9

보다 5.4p 상승한 95.3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2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1.2)과 서비스업(100.1)이 모두 전 분기 대비 개선됐다. 특히 전망 BSI는 올해 4분기 100에서 내년 1분기에는 100.8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개선’을 전망한 기업들은 주요 요인으로 내수판매 호전(81.7%), 자금사정 원활(35.5%), 수출호전(22.9%) 등을 꼽았다.

/김승호 기자

6G 국가 핵심인프라 ‘지능형 기지국’

AI 고속도로로 품질·연산능력 강화

과기부 ‘하이퍼 AI네트워크 전략’
데이터 전달 넘어 자체 연산 수행
2030년까지 500개 거점 구축 목표
기술패권 경쟁 속 경제 주도권 싸움

정부가 기지국 자체가 인공지능(AI) 연산을 수행하는 ‘지능형 기지국(AI-RAN)’을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국가 핵심 인프라로 키운다. AI시대 인프라 전략의 초점을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닌 품질과 연산 능력으로 옮기겠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AI 시대 국가 인프라 전략의 중심을 기존 ‘속도전’에서 ‘품질전’으로 전환했다. 6G를 단순한 차세대 통신 기술이 아니라 AI가 작동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재정의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이퍼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통신망과 컴퓨팅, 데이터 자원을 통합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략의 핵심은 기지국이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AI 연산을 수행하는 ‘AI-RAN(지능형 기지국)’ 도입이다. AI-RAN은 기지국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 연산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무선 접속망이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시간 제어가 필요한 ‘퍼지컬 AI’ 환경에서는 데이터센터로 오가는 기존 클라우드 방식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지국 자체에 GPU를 탑재해 통신과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AI-RAN을 2030년까지 전국 500개 이상 거점에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하이퍼 AI네트워크 전략 이행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450억원) 많은 2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G 상용화 당시 세계 최초 타이틀에 매몰돼 킬러 서비스와 망 품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



KT-삼성전자 직원들이 AI-RAN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AI-RAN은 기지국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 연산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무선 접속망이다. /KT

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6G는 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전환에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시정연설에서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이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 프리-6G 기술 시연을 시작으로 2028년 LA 올림픽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 6G 상용화를 추진한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2030년까지 통신 백본망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하고, 해저케이블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포함한 입체적 네트워크 구조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적 목표로는 2030년까지 글로벌 6G·AI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20%, 표준 특허 점유율 30% 확보와 함께 매출 5000억 원 이상 글로벌 기업 5곳 육성을 제시했다.

중장기 전략과 별도로 당장의 AI 연구개발(R&D)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AI인프라허브’를 통해 엔비디아 최신 GPU인 H200 2296장과 B200 2040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기지국 GPU 탑재로 인한 외산 의존 우려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해외 솔루션을 활용하되, 중장기적

으로는 국산화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 PM은 “CDMA 성공 경험처럼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AI-RAN을 비롯한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국가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AI가 전 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범용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주도권을 놓치면 미래 경제 주도권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AI가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제조·물류·의료 등 실물 경제와 결합하는 퍼지컬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드웨어 망의 연산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전송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국토 전역에 분산된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분산된 두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에너지 효율과 망 부하 문제도 주요 이유다. 모든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센터로 전송해 처리하는 기존 구조는 병목 현상과 막대한 전력 소모를 유발한다. 반면, 기지국 단위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AI-RAN은 전송 단계를 줄여 전력 효율을 높이고 통신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노키아, 클라우드랜 검증 성공

AI-RAN 적용 위한 유연성 확보

LG유플러스가 노키아와 함께 실제 고객이 이용하는 상용망 환경에서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 기술인 ‘클라우드랜(Cloud RAN)’ 검증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클라우드랜은 기지국마다 전용 하드웨어에 탑재되던 소프트웨어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의 중앙 서버에서 가상화해 구현하는 기술로, 네트워크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핵심 기술로 꼽힌다.

양사는 지난 9월 경북 청도군에 클라우드랜 필드 시험망을 구축하고, 실제 5G 이용 환경에서 단말 이동 시 기지국 간 전환 성능과 데이터 전송 속도, 기지국 처리 용량, 전력 소비 효율 등을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상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장비 설치 자동화와 원격 작업, 설치 후 검증 자동화 등 클라우드랜 도입에 따른 운영 편의성 기능도 함께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이번 검증을 통해 기지국 기능의 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클라우드랜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상화와 중앙 집중화가 실제 상용망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무선망(AI-RAN)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랜과 함께 오픈랜(Open RAN) 기술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에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해 기술 완성도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오픈랜은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무선 접속망으로, 특정 제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네트워크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온서비스 AI’ 통한 SME 성과 공유

(중소상공인)

‘AI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 공개
리뷰관리, 톡톡 AI FAQ 등 성과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인공지능(AI) 기술이 중소기업(SME)의 운영 효율과 고객 경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AI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네이버가 추진 중인 온서비스 AI 전략의 성과를 정리한 첫 사례집으로,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확인된 활용 결과와 사업자 인터뷰, 정책적 시사점을 담았다.

리포트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플레이스 사업자를 위한 ‘리뷰 관리 솔루션’이 대표적인 AI 활용 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솔루션은 고객 리뷰 게시 시 AI가 표현 수위와 맥락을 분석해 부정적이거나 민감한 이슈를 선별하고, 사업주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이후 리뷰 내용에 맞춘 답글 초안을 생성해 사업주의 응대를 지원한다.

네이버는 리뷰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민감도를 고도화했으며, 이를 통해 평판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감정적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리포트는 리뷰 대응 경험에 부족한 소상공인도 외부 도움 없이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온라인 커머스 영역에서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메신저 솔루션 ‘톡톡’의 AI 기능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톡톡 AI FAQ’는 고객의 자주 묻는 질문을 자동 생성하고,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해 상담 지연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AI 상품 추천 기능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이용자의 관심사와 검색·구매 이력, 상품 속성 데이터를 분석해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판매자 노출 기회 확대와 구매전환율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서현 기자

SKT, 연말연시 이동통신 품질 집중관리

통신 트래픽 증가 대비 박차
변화가 등 1100여곳 지역별 대응
하루 평균 전문인력 약 900명 배치

SK텔레콤이 성탄절 전후와 연말연시 기간 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변화와 주요 행사 장소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통신 품질 관리에 나선다.

성탄절 시즌인 23일부터 25일까지는 광화문광장 등 주요 변화가와 축제 지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는 이틀간을 특별 소통대책 기간으로 운영하며 실시



SK텔레콤 직원들이 통신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SKT

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관계사, 협력사 전문 인력 약 900명을 하루 평균 배치해 연말연시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전국 타종식과 신년 행사 지역, 해맞

이 명소,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요 관광지과 숙박시설 등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 용량도 사전에 증설했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평소 대비 최대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31일을 앞두고 사전 품질 점검과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SNS와 메시지 전송 증가로 트래픽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수요를 사전 예측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 분위기를 악용한 불법 스팸과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비해 통합보안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감시와 대응을 강화했다. 모바일 악성 앱, 웹 해킹 시도와 디도스 공격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챗GPT 활용한 연말캠페인 진행

오는 31일까지 ‘메리톡마스’ 운영

카카이가 ‘챗GPT 포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연말 캠페인 ‘메리톡마스(MERRY TALK MAS)’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챗GPT 포 카카오’는 카카오가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 지난 10월 새롭게 선보인 AI 서비스다.

‘메리톡마스’ 온라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 카카오톡 내 캠페인 배너를 클릭해 챗GPT 포 카카오 서비스에 진입하면 카드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메시지가 자동으로 입력된 화면을 만나

볼 수 있다. 양식과 규칙에 맞춰 친구나 가족, 지인 등에게 보낼 메시지를 자유롭게 작성한 뒤 발송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남산타워 인근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 된다. 발송한 메시지를 현장 스태프에게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카카오는 내년 1월 18일까지 남산서울타워를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 시각화한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CHARLIE BROWN ORNAMENT
Sweet Pumpkin Filling



CHRISTMAS WREATH
Pistachio Cream



SANTA BELLY
Vin Chaud Filling



SNOOPY
Hazelnut Chocolate Spread



©2025 Krispy Kreme Doughnut Corporation
©2025 Peanuts Worldwide LLC | www.peanuts.com

PEF 규율체계 정비… 5개 증권사, 20조 모험자본 본격 공급

〈한국투자·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

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IB 등 ‘생산적금융’ 로드맵 공유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 개선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원칙 확립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할 것”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부터 사모펀드 규율,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생산적금융’ 로드맵을 내놔다. 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자금 흐름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메시지가 함께 담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미래 가능성을 선별해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의 출발점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를 지목했다. 금융위는 벤처·스타트업 주식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증권사 대표 및 주요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거래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6년간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실상 단독으로 전자등록을 수행해 온 구조에 경쟁을 도입해, 비상장 주식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까지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신규 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PEF 규율 손질·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자본시장 자금 공급의 또 다른 축인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규율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한다. 이 위원장은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PEF의 책임성과 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도입해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참여를 차단한다.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운용사에는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GP 단위의 정기 보고 체계를 도입해 투자·인수 기업의 자산·부채와 유동성 등 주요 경영정보를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도 함께 정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받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 마련과 적용범위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IB 모험자본, 계획에서 성과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합금융투

자사업자로 지정·인가된 대형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도 공유됐다. 이 위원장은 “대형IB가 모험자본 공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공급 의무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감독방식 전반 재설계… ‘리스크 차단’ 방점

금감원 조직개편

자본시장, 펀드심사 조직 확대
은행, 대출·영업 방식 감독 강화
보험, 리스크 관리 기능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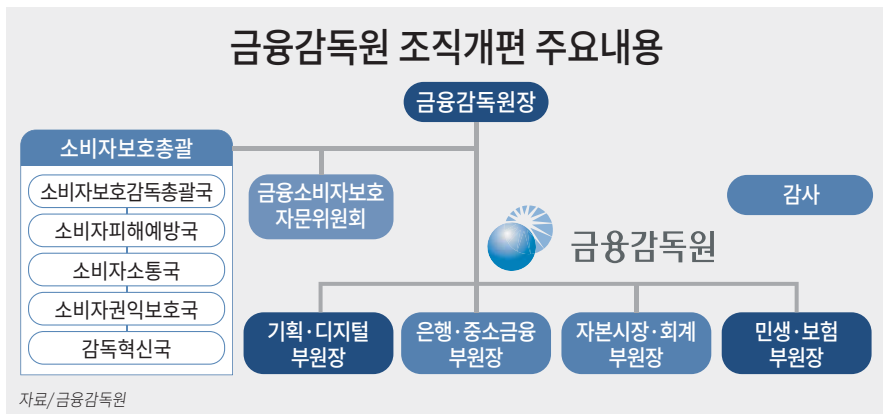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이 감독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분쟁조정이나 제재로 대응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설계와 영업, 시장 거래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해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자본시장·은행·보험·가상자산 등 전 업권의 감독 조직과 기능이 동시에 조정됐다.

◆자본시장-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 전면 재배치

자본시장 부문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이뤄졌다.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문제를 반영해, 감독 기능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점검·상시 감시 체계로 재편됐다. 자산운용, 시장 감시, 회계 감독 기능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자산운용감독국에는 특별심사팀이 신설돼 펀드 심사 조직이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 체제로 확대됐다. 새로 신설된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와 외국계 펀드를 전담 심사한다. 기존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상품 전반의 심사 제도 개선을, 펀드심사2팀은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등 추가 업무 수요 대응을 맡는다.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됐다. 조사 조



직 내 시장정보 분석 기능을 1팀·2반 체제로 개편해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이상 거래 탐지, 정보 분석을 세분화했다.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알고리즘·고빈도 거래 확산으로 복잡해진 거래 구조를 반영한 조치다. 회계 부문 역시 기업 회계 오류와 고의적 왜곡을 조기에 포착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능이 보강됐다.

◆은행-분쟁조정 이관으로 감독 책임 일원화

은행 부문에서는 분쟁조정 기능 이관이 핵심 변화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집중돼 있던 분쟁조정 업무를 은행 감독 부서가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상품 심사부터 영업 감독, 분쟁조정, 검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은행 상품과 영업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까지 수행함으로써, 민원 발생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감독 범위도 건전성 관리에 그치지 않고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확대됐다. 금리 산정 방식, 수수

료 구조, 상품 설명 과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기능이 강화된다.

◆보험·가상자산·디지털 금융-신유형 리스크 전담 체계

보험 부문에서는 상품 감독과 리스크 관리 기능이 세분화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상품 감독 조직을 나누고, 회계 기준 변화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계리 리스크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됐다. 보험 상품 구조와 가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다.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조직 보강이 이뤄졌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변화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거래 구조와 영업 관행, 이용자 보호를 함께 점검한다. 디지털 금융 전반에서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전산 장애 등 사이버 리스크를 분석·관리하는 기능도 강화됐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과 조직적 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과 금융범죄 정보 분석 기능도 신설됐다.

/허정윤 기자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 한번에 확인하세요”

예탁결제원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금융당국 정책 지원·시장안정 기여”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면서,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 1월 12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개정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이-세이프)’와 투자자·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SEIBro(세이브로)’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는 SEIBro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발행,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회사 등 기타 기관 17곳 등 총 46개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이들 참가자가 등록한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은 총 3341건으로, 이 가운데 등록유동화는 196건, 비등록유동화는 3145건에 달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금융당국의 자산

유동화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처음 구축했으나, 이후 공시 연계 확대와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까지 정보공개대상이 확대되자, 발행내역과 의무보유 내역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법령 제·개정 지원과 함께 시스템 개발, 참가자 안내를 병행했다.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지원했고,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공개 절차를 규정한 내부 업무규정도 제정했다. 아울러 신용보강 및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위험보유 의무 감독을 위한 신규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설명회와 사전 테스트도 진행됐다. 예탁결제원은 총 네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과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자자는 분산돼 있던 유동화증권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발행 현황과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석유화학 16곳, 사업재편안 제출 정부, 금융·세제·R&D 지원예고

산업부, 구조개편 1단계 마무리
여수·대산·울산 3대 산단 참여
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 제시
내년부터 구조개편 본격 추진

석화산업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석유화학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다.

김정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여수 지역 석유화학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발표하며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현대 케미칼·롯데케미칼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윈윈이 돼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

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화산업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23일 출범한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다.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정부는 R&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개인사업자 대출 줄었지만 연체율 ‘사상 최고’

데이터처, ‘개인 사업자 부채’ 발표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 1억7892만원
은행·비은행 등 모든 부문서 상승세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2년째 줄었으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사상 최고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892만 원으로 전년(1억7922만 원) 대비 0.2%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반면 작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올랐다. 연체율은 2년째 급등해 1%에 육박한 상태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 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층에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 평균대출 3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1.42→1.92%)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 사업지원·임대(0.89→1.31%), 농림어업(0.92→1.29%), 예술·스포츠·여가(0.61→1.12%), 숙박·음식(0.69→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좌석 축소로 64억 과징금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적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을 합병 이전과 비교해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보던 게 드러나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여기엔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권 의대 수시 미등록 5년 내 최고

종로학원, 4개 의대 수시 미등록 90명
모집정원 축소 속 서울권 쏠림 심화

의대 모집정원 축소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서울권 의대는 수시 중복합격에 따른 미등록 인원이 늘었고, 지방권 의대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모집정원 축소가 지방권에 집중된 반면 서울권은 인원 변동이 없었던 데다, 전국적인 의대 지원자 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서울권 의대 쏠림과 중복합격 이탈이 동시에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주요 4개 의대에서 발생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인원은 총 90명으로, 수시 모집인원 대비 48.4%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주요 4개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은 ▲2022학년도 88명(43.3%) ▲

2023학년도 85명(41.9%) ▲2024학년도 70명(37.6%) ▲2025학년도 84명(45.2%) ▲2026학년도 90명(48.4%)으로 집계됐다. 2024학년도를 저점으로 다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0명 ▲연세대 28명(44.4%) ▲가톨릭대 23명(41.1%) ▲고려대 39명(58.2%)이었다. 서울대는 5년 연속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인원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세대와 가톨릭대는 모두 최근 5년 중 미등록 인원이 가장 많았다. 연세대는 2022학년도 22명에서 2026학년도 28명으로 증가했고, 가톨릭대 역시 2025학년도 21명에서 2026학년도 23명으로 늘었다.

서울권에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이화여대 역시, 대학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종로학원 분석 결과, 전년도 4명(22.2%)에서 6명(26.1%)으로 늘었다.

/이현진 기자 lhj@

“공동원서·통합회원 가입 미리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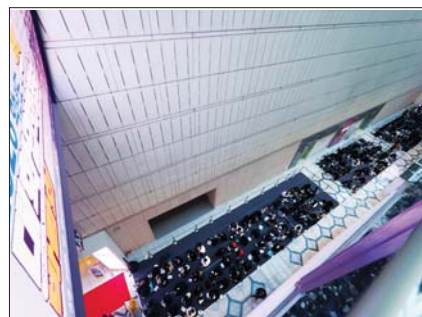
대교협, 2026 정시 원서접수 29~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공동원서 접수서비스를 활용해 통합회원 가입과 공동원서 작성을 사전에 완료해 둘 것을 당부했다.

22일 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전문대학은 29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수험생들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 여부와 공동원서 작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동원서 접수서비스는 한 번 작성한 공동원서를 활용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수시모집 당시 작성한 회원정보와 공동원서가 있다면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서 공동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험생은 정시 원서 접수 전 통합회원 가입과 공동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합회원 가입은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중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부모와 입시생들이 입장하기 위해 앉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한 곳을 통해 가능하며, 한 곳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대행사를 통해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공동원서는 통합회원 ID로 로그인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입력해 작성한다. 한 번 작성한 공동원서는 여러 대학 지원 시 반복 활용할 수 있으며, 수정 후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공동원서를 수정한 뒤에는 반드시 ‘내보내기’ 기능을 눌러야 다른 대행사에서 수정 내용이 반영된다.

/이현진 기자

농협, 학계·농민단체 중심 ‘혁신위’ 1월 발족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전반 점검

내년 1월 학계·농민단체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농협은 이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혁신위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책임 범위, 당연직 운영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맡는다. 또 지역농축협 조합장·임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다루게 된다.

농협은 지난 11월 범농협 혁신 TF(전담반)를 발족하고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개혁과제 뒷받침을 위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선출 투명화 ▲조합원 직선제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 앞 통지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갈팡질팡 ‘일회용 컵·빨대’ 규제에 업계·소비자 혼란 가중

2027년부터 일회용컵 유료화
물가상승·현장혼선 우려 목소리
일회용 빨대 정책 비효율 논란
찾은 제도 변경으로 신뢰도 ↓

정부가 일회용 컵과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잦은 정책 변경과 준비 부족으로 업계와 소비자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가고 있다. /뉴스1

정책 발표 직후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물가 상승과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재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 컵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음료 가격은 유지한 채 컵값만 별도로 붙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난감한 분위기다. 일회용 컵 납품 가격이 분사마다 다르고, 다른 원부자재와 묶어 점주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 컵값을 별도로 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더 깊다. 그동안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매장 이용 비용을 감안해 할인해 왔지만, 일회용 컵에 가격이 붙으면 할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종이컵까지 유료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설거지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일회용 빨대 정책 역시 비슷한 혼선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빨대 재질과 관계없이 ‘손님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침을 내놨지만, 스무디나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비효율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정부는 음료 형태에 따라 빨대 제공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반복의 최대 피해자는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다.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이 빨대 제조업체 리엔비의 최광현 대표는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

다고 해서 당연히 종이빨대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다. 그래서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했는데 정책이 중단되면서 모든 게 부채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내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한때 17곳이었지만, 지금은 6곳만 남았다.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다.

일각에서는 잦은 제도 변경으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시범 도입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철회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회용품 감축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전 논의와 예측 가능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친환경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현장 혼선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부사장으로 승진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
전략경영본부 신설… 담 부사장 담당
러시아·베트남 법인 성과보상 인사

오리온그룹이 오너 3세인 담서원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글로벌 사업 확장과 미래 신사업을 총괄할 전략 조직을 신설하며 차세대 경영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오리온그룹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글로벌 헤드쿼터 역할을 맡는 한국 법인 내에 ‘전략경영본부’를 새로 신설했다. 전략경영본부장은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의 장남인 담서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맡는다. 전무 승진 이후 1년 만의 고속 승진이다.

1989년생인 담서원 신입 부사장은 미국 뉴욕대학교(NYU)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고,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며 IT 기반 사업과 조직 운영 경험을 쌓은 뒤, 2021년 7월 오리온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담 부사장은 그룹 차원의



담서원
한국 법인 전략경영본부장



박종울
러시아 법인 대표이사



여성일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사업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 지원, 내부 시스템 개선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실무를 수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특히 해외 사업 확대와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설된 전략경영본부는 ▲신규사업팀 ▲해외사업팀 ▲경영지원팀 ▲CSR팀을 산하에 두고, 그룹의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과 경영 진단, 기업문화 개선을 담당한다.

해외 법인에 대한 성과 보상 인사도 이뤄졌다. 올해 해외 법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러시아 법인은

박종울 대표이사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994년 오리온에 입사한 박 대표는 익산공장장과 러시아 법인 생산부문을 거쳐 2020년부터 러시아 법인을 이끌어왔다. 트베리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파이·젤리·비스킷 등 제품군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 법인의 고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베트남 법인에서는 여성일 자원본부장이 전무로 승진하며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18년 오리온에 합류한 여성일 대표는 5년간 베트남 지원본부장을 맡아 현지화 체제 강화와 사업 성장에 기여해 왔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기간·채널 확대

기간 일주일로 늘려 접근성 높이고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참여

이마트가 2026년을 맞아 ‘고래잇 캠페인’의 슬로건을 새롭게 공개하고, 행사 기간과 채널을 대폭 확대한 ‘고래잇 페스타’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22일 ‘고객이 응(÷)할 때까지 혜택을 나누겠습니다. 이마트는 갈수록 고래잇’이라는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 올해 2300만 명이 참여하며 흥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혜택을 나누는(÷) 의미를 담아 행사의 판을 키울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큰 변화는 행사 규모다. 기존 주말 중심의 3~4일 행사를 일주일(7일)로 늘려 혜택 접근성을 높이고, 행사 품목도 30% 이상 확대한다. 또한 행사 채널을 이마트 매장뿐만 아니라 이마트에브

리데이, 노브랜드 전문점까지 넓혀 전국적인 통합 행사로 진행한다.

고객 소통도 강화한다. 유튜브를 통해 ‘고래잇’ 캐릭터의 신입사원 적응기를 담은 콘텐츠를 공개하고, 매장 방문 시 혜택이 쌓이는 ‘고래잇 프리퀀시’ 등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해 쇼핑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2026년 첫 ‘고래잇 페스타’는 1월 1일 시작된다. 새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물장어, 반값 후라이드 치킨, 삼겹살, 딸기 등 핵심 먹거리를 가격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이마트 정양오 전략마케팅본부장은 “내년에는 규모부터 상품, 혜택까지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했다”며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해태제과 ‘후렌치파이 감각 탐험 에디션’

64만개 한정판

해태제과가 1등 페스츄리 후렌치파이의 4가지 감각 매력을 재밌는 그림으로 담은 감각 탐험 에디션을 출시했다.

패키지에 후각, 촉각, 청각, 시각적 특징을 이색 탐험 장소와 함께 각각 표현한 일러스트 4종. 압도적인 64겹 페스츄리 과자라는 의미를 살려 64만개만 준비한 한정판이다.

국내 과자 시장 1등 페스츄리로 출시(1982년) 43년 만에 누적 매출 4000억원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했다. 후렌치파이의 독보적인 매력을 맛을 넘어 오감을 주제로 재해석했다. 제과업계에서 과자의 향, 식감, 소리, 모양 등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렌치파йма스코트 ‘후야’가 패키지 에 등장해 4개의 탐험 장소를 소개한다. 숲 속 자연에서 온 과일잼의 상큼한 향



그림으로 즐기는 후렌치파이 감각 탐험 에디션. /해태제과

을 강조한 ‘잼 포레스트’, 64겹의 페스츄리 협곡으로 특유의 바삭한 촉감을 연상시킨 ‘페스츄리 캐년’, 한입 베어 물 때 바삭한 사운드를 콘서트 홀 공연으로 비유한 ‘크런치 홀’, 페스츄리 위에 반짝이는 잼이 채워지는 모습을 담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어필한 ‘윙링 리버’다. 그림을 모두 모으면 후렌치파이의 매력 요소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하나의 감각 탐험 지도가 완성된다.

/신원선 기자

대전신세계, 올해 누적 거래액 1조 돌파

개점 4년, 대전 백화점 첫 성과
전년비 매출 신장률 7% 기록
명품 라인업, 2030세대 공략

신세계백화점이 대전신세계가 지난 21일 기준 올해 누적 거래액 1조원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8월 문을 연 지 불과 4년 만의 성과이자, 1974년 대전 지역에 첫 백화점이 들어선 이래 51년 만에 처음 나온 ‘연 매출 1조’ 기록이다.

올해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전신세계는 전년 대비 7%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고성장의 배경에는 압도적인 명품 경쟁력과 MZ세대를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다.

대전신세계는 루이 비통, 디올, 펜디 등 충청권 최대 규모의 명품 라인업을 갖췄으며, 그 결과 올해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명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40%에 달한다.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도 주효했다. ‘오징어 게임3’, ‘헬로키티 50주년’ 등 화제성 높은 팝업스토어와 영패션 전문관 ‘하이퍼그라운드’의 인기에 힘입

어 올해 방문객 중 2030 세대 비중은 47%를 기록했다. 또한 전체 방문객의 65.5%가 대전 외 지역에서 찾아오는 등 중부권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번 달성으로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에 이어 대전신세계까지 총 5개의 ‘1조 클럽’ 점포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국내 백화점 업계 최다 기록이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대전신세계가 지역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유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연간 최대 3.6조 매출손실 발생… 신약개발 등 산업 제동”

제약바이오협회 등 재검토 촉구
수익악화로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노연홍 협회장 “개선안 도출해야”

국가 핵심 경쟁력 기반인 K제약·바이오 산업이 ‘약가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의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 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모였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2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제약 산업을 뒷받침하는 약가가 무너질 경우 산업 특성상 장기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비대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업 생존과 직결된 수익성 악화다.

현재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 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 경영 전반에서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 40%를 국산 전문의약품 전체에 적용해 보면,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와 제약 업계 간 매출 절감 추산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기등제 의약품의 약가를 계단식으로 인하해 3년간 재정 절감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하 바 있다.

반면 제약 업계는 정부 발표는 특정 고가 의약품만 반영한 수치인 데 비해, 향후 모든 관련 품목에 40%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크다고 쥘었다.

매출 감소는 연구개발, 설비 등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약가 인하 규모는 약 63조원이다. 또 국내 제약 산업의 세계 시장 점

유율은 2011년 1.7%에서 2024년 1.3%로 하락했다. 비대위 측은 “기업 수익이 1% 감소할 경우 연구개발 활동은 약 1.5% 감소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과 성과 중심 보상을 강화하는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산업 현장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개편안은 연구개발, 혁신, 공급 등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된 정책이며 기업의 투자 추진과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U

신년 키워드 ‘FASTER’

CU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말의 해’를 맞아 경영 키워드로 ‘FASTER(패스터)’를 선정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내년도 편의점 산업의 핵심 전략을 담은 키워드 ‘FASTER’를 22일 발표했다.

FASTER는 ▲상품 차별화(Frontier) ▲글로벌 확장(Abroad) ▲사회적 역할(Station) ▲리테일 테크 고도화(Tech-driven) ▲중대형 점포 확대(Enlarge) ▲빠른 서비스 제공(Rapid)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는 빠르고 힘차게 달리는 말의 기상처럼,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사진)는 “FASTER 전략을 통해 고객이 매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K-편의점의 경쟁력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동화약품
‘판콜에스’ 감기약 매출 1위

동화약품은 감기약 ‘판콜에스’가 3년 연속으로 감기약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분기~2025년 3분기 기준, 동화약품 판콜에스는 380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해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약 1323억원 규모의 감기약 시장에서 약 29%의 시장점유율을 올렸다.

판콜에스는 2022년 4분기~2023년 3분기 처음 감기약 매출 1위에 등극했다.

동화약품이 1968년 발매한 ‘판콜’은 일반의약품으로 해열과 진통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처방했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잘크톤스텝 1·2’
무기한 할랄 인증

조아제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제도 개편으로 수출 전용 어린이 영양제 ‘잘크톤스텝 1·2’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무기한으로 전환됐다고 22일 밝혔다.

‘잘크톤스텝 1·2’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할랄 인증서를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신규인증서 형태로 재발급받는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잘크톤 스텝 1·2의 할랄 인증 영구적 유효성 인정은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현지 바이어 신뢰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유럽 골질환 시장 본격 진출

주요국에 스킨보클로·오센벨트 출시
“유럽 바이오시밀러 사업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이 최근 유럽 주요 국가에서 골질환 치료제 ‘스킨보클로’와 ‘오센벨트’를 출시 완료해 시장 조기 선점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독일에서 현지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시작했다. 독일은 잠재 골다공증 환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에서는 기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판매로 확보한 병원 중심의 영업망을 활용해 처방 확대에 나선다. 특히 현지 법인 영업팀이 지금까지 적극 교류하고 있는 류마티스 등 기존 자가면역질환 전문의 상당수가 잠재 스킨보클로 처방



스토포클로(성분명: 데노수맴). /셀트리온

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직판에 돌입한 스페인에서는 제품별로 판매 주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채널에 강점을 가진 현지 법인을 통해 정맥주사(IV) 제형인 오센벨트

를 공급하는 한편, 피하주사(SC) 제형인 스킨보클로는 유통 파트너사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스킨보클로는 종합 병원 내 류마티스내과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오센벨트는 현지 입찰에 집중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제품 직판을 통해 구축한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어, 한층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유럽 전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보령, 정웅제·박경숙 부사장 선임

현장·성과 중심 임원 승진 인사

보령은 정웅제 영업부문장과 박경숙 생산품질부문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보령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사 성장과 직결되는 영업, 생산·품질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한 리더들에게 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정웅제 선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보령에 합류해 Rx부문 의원영업본부장과 Rx부문장 역할을 수행했다. 영업 전략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Rx 부문 전반을 이끌었다. 한미약품 상무 출신으로 시장 변화 대응 경험을 보유했다.

박경숙 선임 부사장은 앞서 2016년 보령에 합류한 후 생산품질부문장을 맡아 의약품 생산과 품질 체계를 책임지고 있다. 약사 출신 전문가이자 여성 리더로서 생산·공급·품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전무로 승진한 성백민 BD&마케팅본부장은 글로벌 및 국내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주도한다.

김기덕 선임 전무는 보령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내부 인재다. Onco영업본부장으로 항암 분야 영업을 지속해 항암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을 갖췄다. 이번 전무 승진을 계기로 항암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무로 승진한 송윤희 CE본부장은 Rx 전략 수립, 시장 분석, ETC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회사 내부 주요 인물이다. 약사 출신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회사 최초 공채 출신 임원이기도 하다.

/이청하 기자

11번가
T 멤버십 고객 감사제

11번가는 오는 30일까지 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 멤버십 고객 감사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필품, 식품, 리빙 등 고객 수요가 높은 470여 종의 상품을 엄선했다. 특히 할인 및 적립 한도를 최대 1만 1000원까지 확대해 지난 행사보다 혜택의 폭을 넓혔다.

주요 상품은 기존 판매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선보인다. ‘평천 곱창돌김(27입)’은 9900원, ‘케라시스 샴푸 세트’는 8400원에 판매하며, 겨울철 필수 가전인 ‘일월 전기매트’와 ‘쿠쿠 전기주전자’도 2만 원대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손종욱 기자

배민B마트
“전통주 배달해드려요”

배민B마트가 전통주를 주문 즉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부터 배민B마트를 통해 전통주 판매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판매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이며, 내년 1월까지 전국 B마트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주류 ‘스마트 픽업’ 방식과 달리, 쿠팡커머스 인프라를 활용해 주문 즉시 배달원이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쿠팡커머스 업계에서 전국 단위 물류망을 이용해 전통주 즉시 배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종욱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7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축축했던 마음이 뽕뽕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 2025. 12. 31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김지윤,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예매처 티켓링크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두산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 기부



두산그룹(박정원 회장·사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성금 20억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은 취약 계층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두산그룹은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기탁한 누적 성금은 578억원이다.

/원관희 기자 wkh@



롯데웰푸드, '그린패키징 공모전'서 최우수상

롯데웰푸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그린패키징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그린패키징 공모전'은 우수한 친환경 포장 기술과 디자인 사례 등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관련 학생 및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롯데웰푸드



공영홍쇼핑, 마포구에 기부금 2000만원 전달

공영홍쇼핑이 서울 마포구 주관의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금 2000만원과 쌀 2000kg을 전달했다. 22일 공영홍쇼핑에 따르면 마포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김영주 공영홍쇼핑 대표이사 공동대행과 김은영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공영홍쇼핑



한림의료원, '노사공동 헌혈 캠페인' 실시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2일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2025년 노사공동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직원과 병원 내원객 100여 명이 참여해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또 이번 헌혈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한림의료원



벤츠,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별 봉사활동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 '벤츠와 함께하는 산타 데이'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산타 데이'는 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벤츠 올투게더'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츠

SPC그룹,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베이킹 나눔

제과제빵 기술로 전하는 연말 나눔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 역량 강화 전문성 나누는 상생 교육 프로그램

SPC그룹이 연말을 맞아 발달장애인 제과제빵 근로자를 위한 교육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울베이커리' 소속 발달장애인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파리크라상 송파교육장에서 19일 진행됐다. 소울 베이커리는 환경을 생각한 원료 선택과 지역 농산물의 활용을 통해 지역과 공존하는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며,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사업장이다. 사회복지법인 '애덕의 집'이 운영한다.

SPC그룹은 2012년부터 소울베이



SPC그룹이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제과제빵 교육을 진행했다.

/SPC그룹

커리와 함께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SPC&Soul 행복한 베이커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2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장애인 제빵 교육장 조성, 직업훈련비 지원, 해외연수 지원 등 총 8억 8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날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기술교육팀 전문 강사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전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

LX하우시스, ESG 전 부문 'A등급'

한국 ESG 기준원 발표

인테리어업계 유일 10년 연속 유지

LX하우시스가 최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 ESG 평가'에서 환경 우수(A), 사회 우수(A), 지배구조 우수(A) 등급을 받아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받았다.

우선 환경(E) 분야에서 LX하우시스는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조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S) 분야에선 협력사 및 지역

사회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추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X하우시스는 협력사의 제조 경쟁력 지원을 목적으로 '상생협력펀드' 및 '동반성장 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지배구조(G) 분야에선 2022년 신설된 ESG위원회를 필두로 ESG경영 체계를 공고히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사적인 ESG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올초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각 산업군별 ESG경영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로 선정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

BNK부산은행, 지역 아동에 따뜻한 나눔

복지관·그룹홈 아동 대상 지원

과자세트·선물 지역사회 전달

BNK부산은행은 돌봄이 필요한 부산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봉사의 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아동들에게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그룹홈 아동 대상 맞춤형 선물 지원과 복지관 아동 대상 간식 나눔 활동으로 이원화해 운영됐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지역 10개 구에서 지역봉사단이 참여해 복지관 아동을 위한 과자세트 3000개를 직접 제작·포장에 전달했다. 또한 지역봉사단 소속 봉사자들이 복지관별로 배치돼 간식세트 제작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은행 본점에서는 진구·남구·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과 BNK부산은행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연제구·수영구·사하구·중구 등 6개 구 지역봉사단이 그룹홈 아동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제세트와 미니 크리스마스트리, 손편지 등을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제작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은 "이번 지역봉사의 날은 아이들이 직접 고른 선물과 임직원의 정성이 담긴 마음을 함께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롯데칠성음료, 공정거래 CP 평가 AA등급

최고경영자 주도 준법경영 성과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CP 운영 실적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CP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 경영진의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고경영자가 CP 도입과 운영 전반을 직접 주도하며 자율 준수 문화 정착에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와 리스크를 정기적, 직접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결정 단계에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서부터 준법 요소가 반영되도록 한 점도 인정받았다. 또한 직급별,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관리하는 감시 체계를 수립하고, 내부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개선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중진공, 데이터 산업진흥 협회장상 수상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성과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22일 중진공에 따르면 공단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체계 고도화와 AI 기반의

정책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힘썼다. 중소기업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고 정책자금 지원 과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이끌었다.

중진공 김일호 기업금융이사는 "중소·벤처기업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 강연경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

부음

▲정영식씨 별세, 박노애씨 남편상, 정영수(홍천조지스 대표, 홍천M&T 상무)·연준·연우(대신증권 홀세일부문장)씨 부친상, 임선영·전혜선씨 시부상 = 21일 오후 1시 16분,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용인 아너스톤. (02)3010-241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치킨 한 마리 말고 ‘10호’ 주세요”



연 윤 열 의
푸드톡

닭은 보통 삼계와 육계로 구분하는데, 삼계는 주로 삼계탕 용도로 사육된 도체 중량 400~500g의 어린 닭을 말한다. 육계는 고기용으로 개량되어 성장이 빠르고 살코기가 많다.

우리가 즐겨 찾는 치킨은 육계를 말하는 데 오래 전부터 닭의 중량 대신에 ‘호수’라는 그들만의 은밀한 용어를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체중량이 가장 작은 451~550g은 5호라고 칭하고 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크기인 10호는 951~1050g, 11호는 1051~1150g, 가장 큰 30호는 2951g 이상이다.

12월 16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치킨 중량이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마련한 치킨 중량 표시제는 B*C, B*Q, 교*치킨, 처*집양념치킨 등 주요 10대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된다. 이들 브랜드는 매장이나 배달 주문 메뉴판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럼 (g) 단위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며, 한 마리 메뉴의 경우 ‘10호(951~1050g)’와 같은 호 단위 표기도 허용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약 6개월 간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적발 시 처벌보다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게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제도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점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주요 치킨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욱 강력한 것은 ‘중량 품수제 보센터’의 운영이다.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중량이 줄었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면, 소비자단체가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나 식약처에 통보해 조사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명백한 빈틈이 존재한다. 중량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기존보다 중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 공지’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

품 크기·중량·품질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의 역사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꽤 오래되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비단 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감자칩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한 통, 심지어 화장지 길이까지 은밀히 줄어드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물가 부담 속에서 기업이 선택한 ‘꼼수’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치킨중량 표시제는 그 꼼수를 막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가장 논란이 많고 중량 측정이 비교적 명확한 치킨을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선택할 도구’를 넘겨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치킨 소비자는 ‘한 마리’라는 추상적인 말보다 ‘얼마나 큰 한 마리’인지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업체들은 더 이상 몰래 양을 줄이는 ‘꼼수’보다 맛, 품질, 서비스, 그리고 정직함으로 대표되는 ‘공정한 경쟁’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치킨을 주문할 때 한 번쯤 메뉴판에 표시된 그 숫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그 작은 숫자가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다.

/식품기술사·글로벌비건인증원장
인천푸드테크협회사무총장·식량안전연구센터장

K-지폐의 처지



김 연 세
(정책사회부)

K-푸드가 연일 상한가다. 세계인 다수가 달고나를 알고 떡볶이도 해 먹는다. 한국에서 근무하다 최근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한 외국 여성의 사연을 전해 들었다. 한국 있을 때 학교 다녔을 아이가 밥상 앞에서 김만 찾았다는 후문. 이 엄마는 ‘이제 뭘로 애 밥해 먹이나’라며 푸념하던 끝에 출국 전 김을 잔뜩 사 갔다고 한다.

10여년 전만 해도 우리 보고 “재패니스? 차이니즈?” 하며 말 거는 거리 상인들이 해외에 흔했다. 지금은 아니다. 한국인들과 마주친 다른 나라 관광객 무리가 “꼬레, 꼬레이노” 하며 수군댄다. 한국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다. 그런데 소위 ‘돈의 체면’

은 말이 아니다. 외국 가면 10유로, 50유로 등 지폐를 꺼내 써야 할 때가 있다. 우리 돈 1만7000원, 8만5000원쯤 된다. 그들은 두 자릿수인데 우리는 다섯 자리나 된다.

지금의 화폐는 5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 1962년에 발행된 화폐개혁에 따라 70년대 초중반 순차적으로 발권된 5000원권·10000원권·1000원권 그대로다. 이후 2009년에 50000원권이 추가로 발권됐을 뿐, 나머지는 위변조 대응 목적의 도안 교체만 실시됐다. 나라 경제규모가 1962년과 비교해 수천 배 뛰었다. 그런데 돈의 액면단위는 그대로이다 보니 서울 어디 집값 수십억, 가구빚 2000조 등의 막대한 액수를 별 감흥도 없이 대한다.

미화 1달러 대비 코스타리카 화폐는 490 콜론, 헝가리는 320포린트, 튀르키예는 42리라, 체코는 20코루나, 멕시코는 18페소 수준이다.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회원국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달러화 대비 자국화폐 환율이 네 자릿수인 곳은 한국 포함 2곳뿐이다. 한국에 10억대 아파트가 흔하지만 달러 10억은 어마어마하다. 10억 불이란 수치는 원화 1조에 4800억을 더해야 나온다.

더는 미룰 때가 아닌 듯 싶다. 10000원에서 0을 두세 개 빼는 액면단위 절하가 필요하다.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이다. 만 원을 백 원 또는 십 원으로 하향, 아니면 만 원=10한 등의 명칭변경을 시도해 볼 작하다. 물가급등 우려를 부각하는 회의론도 물론 나오겠지만 결가지에 불과하다.

K-푸드에 특히 더 열광한다는 아시아는 어떤가. 원화 환전 시 1홍콩달러가 190원 선, 말레이시아의 1링깃이 360원 선이다. 오만의 1리알과 쿠웨이트의 1디나르는 각각 3800원대, 4800원대에 이른다. 코리아 마니의 값어치가 추려해 보인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23일 (음 11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일단 새로운 일에 도전하도록. 4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절제가 필요. 60년생 제 분수도 모르고 경가망동에 주의. 72년생 모르는 곳에서 기술력으로 나를 알아준다. 84년생 발을 두러워하고서는 좋은 꼴을 얻을 수 없다.



37년생 겨울은 절대 먼저 옷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49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61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일 될 수 있다. 73년생 배우자가 떠나니 자녀들도 외로움만 더한다. 85년생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필요.



3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0년생 내일의 일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 62년생 뒷사람을 닮지 말고 서류를 다시 살펴라. 74년생 문서는 변화하여 비옥이 되다. 86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진행.



39년생 나의 인생이니 내 탓 말고 공부하라. 51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라. 63년생 낙심할 것은 없도록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 75년생 거짓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87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조금씩.



40년생 관인 상생이니 계약관계에서 기쁜 소식 온다. 52년생 일찍 귀가하여 저녁을 가족끼리. 64년생 우울증인지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76년생 가까운 친구의 감언이설이나를 슬프게 한다. 88년생 감정의 이사는 신중히.



41년생 분실 수를 주의. 53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지부지 사랑도 마찬가지. 65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 77년생 영업은 아득이. 89년생 깊은 강물과 같이 속 깊은 사람은 많지가 않으니 내가 이해를.



42년생 어린 사람과 닮음이 생기니 말조심. 54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참석해야 기운이 들어온다. 66년생 귀갓길에 술을 넘치도록 마시지 말라. 78년생 오래 사는 타향이 이제는 고향 같은데. 90년생 주변에 인심을 잃지 않아 평온한 날.



43년생 신세를 진 사람이 빛을 감로어 오는 날. 55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하라. 67년생 들어가지마자 불평만. 79년생 고서를 보고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뒷사람은 경계하라. 91년생 방해 실패가 있지만, 극복하게 된다.



44년생 조용한 가운데 일을 처리하니 이익이 두배. 56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로 결국 우울감만. 68년생 언제나 오늘날 같았으면. 80년생 재물에 마가 끼었으니 양보의 미덕으로 진행. 92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마귀둔 일을 처리.



45년생 이익을 두고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가 온다. 57년생 가정의 화목이 언제나 고맙다. 69년생 업무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81년생 복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93년생 지출관리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46년생 천재라도 노력 없이는 단발. 58년생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그물을 먼저 준비. 70년생 경쟁자가 생기니 일의 마무리가 힘들 수. 82년생 남의 탓보다는 내 탓이 크니 남의 핑계를 대지 말 것. 94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47년생 돌을 얻기 위해 하나를 양보. 59년생 사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 나온다. 71년생 과정을 중시해야 결과가 얻는다. 83년생 친구의 소식이 병원에서 온다. 95년생 돈거래를 하려면 신용을 지키는데 상대가 미흡하면 중지해야.



김상회의四季 지혜

잘 모르는 사람은 命理學을 운세나 길흉화복을 점치는 도구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깊은 근간에는 수천수만 년 동안 동양 철학이 축적해 온 인간과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명리학은 사주팔자로 타고난 삶의 지도를 읽고 대운과 세운이라는 변화에 맞춰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삶의 지침서이다. 명리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지혜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때를 알고 균형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명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어떤 인생이든 세상살이의 굴곡은 영원히 지속하지 않으며 대운과 세운의 순환 아래 놓인다. 운의 순환을 잘 이해하면, 힘겨운 상황에 부닥쳐도 곧 빛이 올 것을 알기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잘 나갈 때도 자만하지 않고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하락을 대비하게 된다.

이렇게 운의 시계를 읽어내는 지혜를 갖추면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또 다른 인생 지혜는 자신의 사주팔자를 제대로 알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주팔자는 자신의 오행과 십성의 구성을 보여준다. 어떤 기운이 강하고 약한지,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식상이 강한 사람은 창조성이 남달라서 틀에 박힌 조직 생활보다 자유로운 예술이나 사업 분야에서 빛을 발한다. 관성이 강한 사람은 조직의 질서를 중시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공직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자신의 사주에 관성이 부족한데 억지로 높은 자리를 욕심내거나, 식상이 약한데 창의력이 중요한 직업을 택하면 내내 흠뻑길을 걸어야 한다. 명리학은 자신의 선천적인 그릇과 재능을 알게 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삶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지혜, 命理는 우리를 다그치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0

결합형 �도쿠

칼라 �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2	3	6		8
				7				
9		2						
	5	1					9	8
							5	7
	3							
1		4	5	7		3		2

7	2	1	9	6	8	9	8	2
8	9	8	2	7	1	7	6	9
9	6	2	9	7	8	1	2	8
6	7	8	2	9	8	1	9	
2	2	9	1	8	9	6	8	7
8	1	9	7	8	6	9	2	2
2	9	8	1	7	8	9	6	
1	8	7	6	9	2	2	9	8
9	8	6	8	9	2	2	7	1

2	9	8	8	2	9	7	6	1
9	6	7	1	9	8	2	2	8
1	2	8	2	6	7	9	8	9
2	2	9	7	1	6	8	8	9
9	8	6	2	1	8	2	1	9
7	8	1	9	8	9	2	2	6
8	1	2	6	7	8	9	9	2
6	7	2	9	2	1	8	1	8
8	9	9	8	2	1	6	7	2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원두숲 일대 생태복원사업

경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5000만 원을 확보하고, 산 내면 원두숲생태공원 인접 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납부한 부담금을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제도로, 훼손 생태계의 체계적 복원과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산내면 외칠리 26번지 일원 9800㎡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추진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연말맞아 산타버스 달린다”

부산시는 22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산 산타버스 이벤트를 운영한다.

부산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 전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온 연말연시 대중교통 이벤트로 시내버스 업체와 승무원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부산의 대표 콘텐츠다.

올해는 안전성을 보완해 10개 노선, 10대가 운행된다.

시는 기존의 재미 요소를 유지하는 한편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과 차량 내·외부 래핑 방식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람객 5만명 돌파

경북 예천군은 예천박물관이 개관 후 첫 연간 관람객 5만명을 돌파했다.

예천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거주지는 예천이 3만5099명(69.73%), 영주 5435명(10.81%), 서울1638명(3.36%), 안동 3524명(7.01%)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방문객과 인접 도시 거주자 방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울·경기 지역 방문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천박물관은 관람객 5만명 돌파를 기념해 간단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예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청송군
고위공무원 폭력 예방교육

청송군이 조직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교육 의무화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으로, 관리자 차원의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서울시, 공공서비스 통합 앱 운영
모바일카드·전자증명서 발급 등
시민 편의성·행정효율↑, 예산↓

공공서비스를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온(ON)’이 2개월간 시범운영을 끝내고 새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기능 안정성·인터페이스 보완 등 시범운영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개별 운영되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 모바일 플랫폼으로 ‘서울온’ 본인 인증 한 번이면 그동안 앱을 각각 설치·가입하고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올해 11월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후 신규 회원 가입자는 전년



공공서비스 통합 애플리케이션 ‘서울온’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6061명 수준이던 신규 가입자는 올해 10월 3만1308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일평균 2000명 수준이던 접속자 수도 5000명 안팎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앞으로 ‘서울온’ 앱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

급 ▲전자증명서 100여 종 발급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 ▲서울시 디지털 증서(임명장·표창장 등) 관리 ▲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이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에게 맞는 서울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서울+(플러스)’를 통해 연령·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디지털 취약계층도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화면 구성과 이용 동선을 직관적으로 개선,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알아서 보여주는 행정’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시는 이번 ‘서울온’ 통합 앱 출시로 시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오를 뿐 아니라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앱 운영에 투입된 인력과 행정 절차가 줄면서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은 ‘서울온’ 서비스 고도화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게시판, 약관 관리, 알림·공지, 관리자 시스템 등 중복 운영되던 기능을 일원화하고 운영·보안·고객 대응·감리 체계 통합으로 운영비 연간 약 1억50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에코마일리지 등 분산 관리되던 서비스를 마일리지 통합조회 제공, 이택스(E-tax) 연계로 나의 세금 확인, 내 주변 공공시설 추천 등 지도기반 생활 정보 서비스 확대 등 내년 ‘서울온’을 생활 밀착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월 ‘서울온’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기존 서울시민카드 앱은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영주시, 노후 주거단지 ‘새단장’ 경북도, 난임·돌봄 지원확대 만족도 높아

풍기읍, 도시재생 지원사업 공모 선정
총 218억 투입… 생활기반시설 확충

영주시의 풍기읍 동부리가 국토교통부 ‘2025년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총 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목표로 한다.

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에 풍기읍 동부리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국비 확보는 물론, 노후 주거지에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선정 대상지는 풍기읍 동부리 335-1

번지 일원 약 9만 5500㎡ 규모다. 시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총 218억 원(국·도비 105억 원 포함)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생활 SOC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이다.

영주시가 계획한 주요 사업에는 마을 복합편의센터 조성, 안길 연결도로 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마을 공동시설 리모델링, 반집 철거와 집수리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보행 안전과 주차난 해소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저출생과의 전쟁’ 성과·계획 발표

경북도가 올해 추진한 ‘저출생과의 전쟁’ 성과와 내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는 올해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형 대표 돌봄 정책이다. 이용 어린이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7~12월 2만2700명에서 올해 1~10월에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은 출산 직후 부모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며 영아 건강·육아 상담과 틈새 돌봄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 지원 정책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



초등학교 방학 놀이터.

/경북도

다. 소득과 연령 제한 폐지에 이어 올해에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정부와 협의해 전면 폐지했다.

또 난임 진단자의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했다. 올해 난임 부부 1418쌍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매 쿠폰, 이사비 지원, 가족 진료비 지원 등 혜택을 대폭 늘려 11월 말 기준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봤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인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 만족도 94.7%

품질·안전성 확보… 학교 만족도 높아

인천광역시시는 2025년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94.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축산물 공급업체를 엄격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이후에도 작업장 점검과 축산물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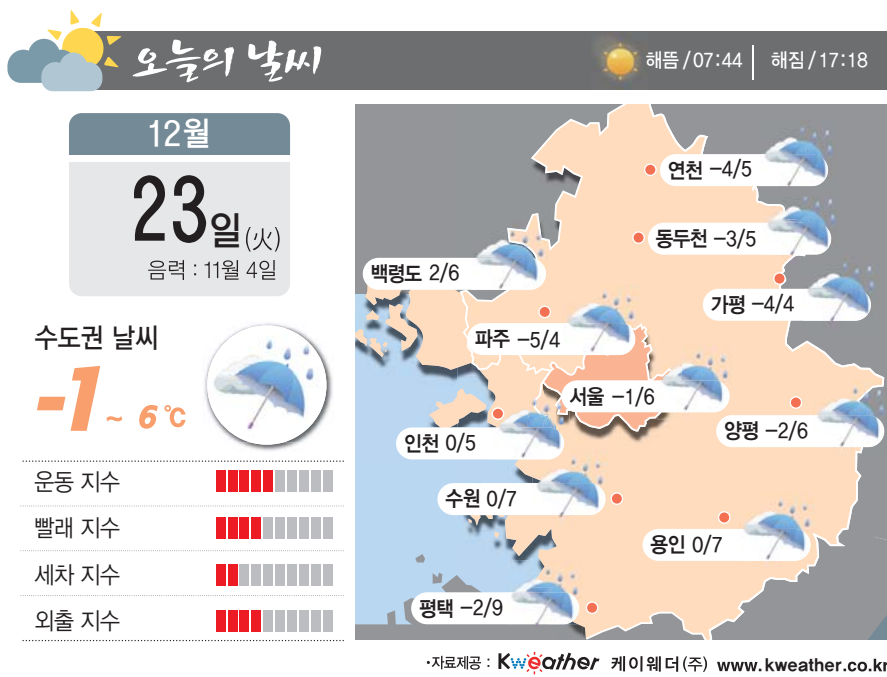
이번 만족도 조사는 사업 참여를 희

망한 2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실제 참여 학교와 미참여 학교를 모두 포함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미참여 사유 등을 함께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사업 전반 만족도 ▲축산물 품질 ▲공급업체 평가 ▲건의사항 ▲미참여 사유 등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본사업 추진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학교 중 94.7%가 사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는 ‘축산물 품질’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트럼프, 어려운 외교문제 사위 재래지 쿠슈너에 점점 더 의존”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또 폭격… ‘헤즈볼라’ 1명 죽고 1명 부상
/사진 뉴시스

▲美 ‘올해 경제 나아져’ 18%…책임자는 ‘트럼프’ 47% ‘바이든’ 22%
▲中 하얼빈 빙설제, 기후온난화로 얼음 녹아내려 비상

▲日집권 자민 간부 “비핵3원칙, 논의해야 할 과제 중 하나”
▲쿠바, 미국의 베네수 “외국 테러 조직”지정에 반박 성명



갈팡질팡
일회용 컵 규제에
업계·소비자 혼란
나



Life

제약바이오업계
약가제도 개편
기자회견

L2



방산에서 우주까지... 민간기업이 주도한 전략기술 ‘대전환’

뉴메트로 10년 기획 전환기의 대한민국 산업의 최전선



한국의 전략기술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항공엔진, 우주기술, 정밀유도무기, 무인·AI 전투체계 등 기존에는 정부·군·연구기관이 주도하던 분야가 이제 민간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내재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K9 자주포와 전투기 엔진 생산으로 대표되던 전통 방산기업이 불과 몇 년 사이 우주발사체부터 엔진·유도무기·AI·무인체계까지 전략기술 전 분야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 한국이 전략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공급국’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의 중심축을 한화가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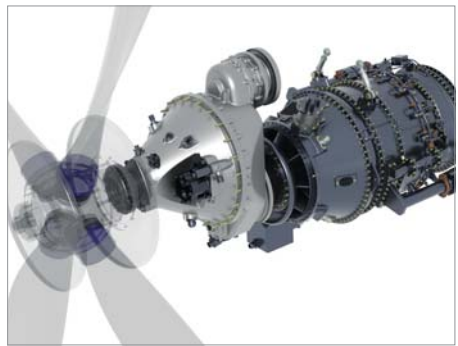
◆방산에서 우주까지...기술 확장의 우상향 곡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변화는 R&D 투자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올해 1~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개발비 자산화 제외)는 1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단일 제품·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엔진·유도무기·무인체계 등 전략기술 전 분야로 확장하는 투자의 성격상, 기업 체질이 ‘제조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주발사체 분야는 변화의 스케일을 단번에 보여준다. 지난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제작·조립·점검·운용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발사체로 기록됐다. 한국 우주개발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32년까지 누리호 제작·발사 통상 실시권을 확보했고 2027년 6차 발사 수행까지 예정돼 있어 사실상 한국의 우주 수송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부상했다.

한화그룹이 ‘스페이스 허브(Space Hub)’를 중심으로 구축한 우주 밸류체인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발사체 엔



1400마력 터보프롭 항공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개발비와 실적 올해 3분기 누적



‘우주 밸류체인’ 구축



항공엔진기술 보유 현황

기술보유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개발 시도국가 일본, 인도, 터키, 대한민국



자료/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래픽/정민주 기자

진과 기체 제작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고, 위성 제작은 계열사 세트랙이 담당한다. 저궤도 통신위성과 레이더·우주센서 등 핵심 탑재체 기술은 한화시스템이 공급하고 위성 운용·지상국 구축·데이터 처리·관제 시스템 등 후방 기반은 그룹 계열사 협력으로 통합돼 있다. 즉, 발사체 개발 → 위성 제작 → 통신·탑재체 기술 → 지상국·데이터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수직계열화 구조가 그룹 내부에서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스페이스X·에어버스·록히드마틴 등만이 구축한 세계적 구조로 한국 기업으로서 최상이다.

방산·우주·엔진 등 전 분야 수직결합 전략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R&D투자 3배 늘려, 기술중심 발전

국내 최초 민간기업이 누리호 총괄 발사체·위성·통신 우주밸류체인 구축

여기에 차세대 발사체(KSLV-III)에 재사용 기술을 적용해 발사비를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kg당 약 1000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하면서 한화는 ‘한국형 스페이스X’ 전략을 더욱 구체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공엔진·유도무기·무인체계...미래 전장 3대 기술 내재화

한화의 기술 확장은 우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항공엔진·유도무기·무인체계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 분야는 미래 전장에서 결정적 우위를 질 수 있는 핵심 기술축이다.

항공엔진 분야에서 한화는 단순 생산 기업을 넘어 기술 국산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판교 R&D 캠퍼스에는 항공엔

진·항공시스템·항공소재 연구센터가 운영 중이고 고온·고내구성 가스터빈 소재와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1만6000파운드중량(lbf)급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계획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정부는 오는 2039년까지 총 3조 3500억원을 투입해 1만 6000lbf급 중대형 터보팬 엔진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등급은 KF-21 이후의 차세대 전투기·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난도 엔진으로 고압압축기·고온 터빈·저피탐 구조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900~1200lbf 유도무기용 엔진, 5500lbf 무인기 엔진 개발 경험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1만1lbf 및 1만 6000lbf급 엔진 개발 프로그램에 단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여섯 번째 전투기 엔진 기술 보유국에 도전하는 전략적 시도다.

정밀유도무기 분야에서도 한화는 추력 정밀제어, 고기동 추진기관, 통합유도조종 시스템 등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전쟁 양상이 ‘장거리·정밀 타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K9 자주포 원격무인화,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 실제 운영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AI 기반 의사결정·원격통제 기술을 시험하고 있으며, 장차 유인체계와 무인체계가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전력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기술 내재화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탄탄한 재무력이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8조 2816억 원, 영업이익은 2조 2816억 원으로 각각 147%, 79.5%

증가했다. 수주잔고 또한 30조 9959억 원에 달해 향후 4~5년 안정적 매출이 보장된 상태다. 방산 부문의 강력한 현금 창출력이 우주·엔진·유도무기 R&D로 이어지는 내부 자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항공엔진분야 기술·부품 국산화 앞장 3.3조 투입, 1만 6000lbf급 엔진 개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속도

탄탄한 재무력으로 R&D 구조 확보 전략기술 공급국으로 전환 이끌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변화는 단순한 기업의 사업 확장이 아닌 한국 전략기술 산업의 체질 개선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스페이스X, 록히드마틴, RTX, 노스럽그루먼 등 방산·항공·우주 기술을 통합한 플랫폼 기업이 국가 전략기술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기업이 부재했지만 한화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우주발사체, 위성, 항공엔진, 정밀유도무기, 무인·AI 전투체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기술 아키텍처는 한국 산업사에서 처음 등장한 모델이다. 이는 한국이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공급국으로 이동하는 상징적 장면이며, 민간 기업이 국가의 전략기술 주도권을 쥌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정부·연구기관·산업계와 협력해 대한민국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발사체·위성·엔진·유도무기 등 핵심 기술을 내재화해 글로벌 수준의 종합 기술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3년 연속 ‘KFA 올해의 골’ 선정...볼리비아전 프리킥
▲보스턴, 세인트루이스와 3대1 트레이드 단행...콘트레라스 영입
/사진 뉴시스

▲개최국 모로코, 네이션스컵 개막전서 코모로에 2-0 완승
▲여자농구 우리은행 김단비, 2라운드 MVP 선정...통산 17번째

▲‘거북정’ 보성 영광정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됐다
▲국종박 영문학술지 JKAA, 세계 최대 오픈액세스 DB 등재